

第61回

서울特別市 鍾路區議會 運營委員會 會議錄 第2號

서울特別市鍾路區議會事務局

日 時 1996年 7月 3日(水) 10時 06分

場 所 運營委員會室

議事日程

1. 종로신문 구독의 건

審査된 案件

1. 종로신문 구독의 건 1面

1. 종로신문 구독의 건

(10시 06분 開議)

○委員長 羅在岩 자리를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8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運營委員會 開議를 선포합니다. 지난 6월 29일, 7월 2일 1차 運營委員會에서 거론됐던 종로신문에 대해서 이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委員님들! 바쁘신 중에도 특별한 시간을 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어쩌면 오늘 토론이 우리 運營委員 여러분과 같이 하는 會議로서는 마지막 會議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서 감회 또한 새롭습니다. 좋은 토론의 결실이 있도록 부락을 드립니다.

그러면 잘 아시다시피 종로신문 구독은 지난 예산 책정을 할 때 6개월간 구독하는 것으로 봐가지고 금번 6월 31일이 마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구독을 할 건지 아닌지 그 여부를 오늘 이 자리에서 委員님 여러분께서 결정을 지어 주셔야 하기 때문에 시간을 냈던 것입니다.

그럼 토론하실 委員!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하는 委員 있음)

네. 朴鍾植委員!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朴鍾植委員 우선 局長님이 책임자이니까 局長님께 여쭙보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의회홍보비를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하느냐 등등 논의가 있다

가 우리 지역신문에다가 의회란을 만들어서 홍보하는 것이 좋겠다 해가지고 우리 홍보비를 종로신문에다가 구독료로 지원을 하면서 홍보를 해왔는데 지금 6개월입니다. 6개월 동안 어느 議員은 한 차례 정도 보도가 됐고 어느 議員은 한달에 한 번, 두 번 이렇게 보도됐고 굉장히 차등있게 보도가 많이 된 걸로 아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事務局長 李種相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일 먼저 문제가 되는 게 차등보도가 제일 문제인데 총 6개월 동안 112건 보도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공통사항이 한 32건쯤 되고 총 112건으로 해서 평균 우리 議員님 21분에 대한 보도율이 3.7회가 됩니다. 그리고 최다로 나오신 분이 7회가 나왔고 한 번도 안나온 분이 딱 한 분 계세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여러 번 얘기를 해서 평균적으로 해줘야 되지 않겠냐 했는데 취재를 하려고 해도 취재가 어려운 모양이에요. 그래서 취재가 안됐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저희는 25개 구의 현황을 보면 거의가 서울신문이고 지역신문은 25개 구청 공히 다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하는 방법이 문화공보실을 통해서 다 지원을 해주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의회에서 하는데 문화공보실을 통해서 서울신문하고 지역신문을 하게 되면 의회에 대한 보도는

조그맣게 납니다. 특별히 보도가치가 있다 하는 것만 하지 내지 않는데 우리 구는 우리가 예산을 주기 때문에 3면에 구의회 증계란이다 해서 매번 나오기 때문에 사실 25개 구 중에서도 議會에 대한 보도를 우리 종로구처럼 해주는 데가 없어요. 다른 데는 구청 집행부에 문화공보실을 두니까 구청과는 잘해줘도 의회란은 잘 안해줘요. 그래도 사실 다른 구보다도 많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다만 신문사에서 좀 끌고루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돼서 그러는데 하반기라든지 앞으로 계속 구독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면 그것은 저희가 책임지고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朴鍾植委員 다른 구보다 우리 종로 지역신문에서 의회를 보도를 많이 하고 있는 거는 우리가 육안으로도 알 수가 있는데 그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의회홍보비를 별도로 의회에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된다고 보는데 그러면 종로신문에서 취재가 어렵다고 얘기를 했나요? 한 번도 보도가 안된 분들은 결국은 취재가 어렵다는 얘기인데 취재가 어렵다는 게 어떤 면에서 취재가 어렵다고 했던가요?

○事務局長 李種相 그러니까 우선 만나서 인터뷰를 하고 대화를 해야 되는데 만나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朴鍾植委員 취재하자고 종로신문에서 나한테 전화를 했거나 하는 일 없습니다. 이런 일 없고 내가 세미나에 가서 불평을 한 다음에 그게 조금 얘기가 돼 가지고 그 다음에 한 번 보도된 걸로 아는데 지금 취재가 잘 안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의 변명이고 지금 제일 많이 되는 분이 7회이고 제일 안된 분은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보더라도 한 번밖에 보도가 안된 議員도 문제가 됩니다. 이렇게 편파적으로 차이가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차이면 몰라도 일곱 번, 한 번, 차이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차이가 많은 이유가 틀림없이 있을 것 같은데 그 이유가 뭔지 자세히 알아본 적이 있다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事務局長 李種相 이유는 결과적으로 종로신문

에서 열성적으로 해줬으면 되는데 그게 안 돼서 그런데 그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결정을 해주시면 앞으로 시정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朴鍾植委員 우리가 의회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도 별도로 뭘 줘야 보도를 해주는 이런 상황이면 굳이 할 필요없는 거 아닙니까? 어차피 잘 주는 사람들, 젊은 사람들 보도는 잘 해주고 안주는 사람들은 한 번도 안되고, 이러면 굳이 의회에서 홍보비를 할애해서 지역신문 한 군데라도 밀어줄 필요는 없다고 보는데 局長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事務局長 李種相 그런데 저희는 지역신문이 종로저널하고 종로신문 두 군데가 있다가 종로저널 편집자 겸 사장이 잘 아시겠지만 구속돼 있고 그래서 지금 그래도 그나마 명맥을 유지하는 것은 종로신문 하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건 運營委員會에서 결정을 해주시면 저희 집행부는 거기에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朴鍾植委員 아무튼 하반기에도 전반기처럼 그렇게 하기로 결정된다면 議員들 모두의 권익이 공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事務局에서도 보도관계에 조금 관심을 가지고 관여를 하신다면 이렇게 한 번 보도된 사람, 일곱 번 보도된 사람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그저 조금 차이나는 정도는 서로 이해를 해야지요. 그러나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면 한 번도 보도가 안된 사람은 신문사로부터 소외감을 느낄 것이고 일곱 번 보도된 사람 그런 분들은 각 지역에서 유지들이 지역신문 딱 펼치면 몇몇 사람 사진첩이다 이런 소리 많이 들어요. 이러지 않도록 事務局에서 신경을 좀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事務局長 李種相 네, 알겠습니다.

(「委員長!」 하는 委員 있음)

○委員長 羅在岩 네, 朴文培委員! 토론하십시오.

○朴文培委員 네, 朴文培委員입니다. 局長님을 질책하는 질의는 아닙니다. 그렇게 아시고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6개월 동안 우리가 신문구독을 했지요? 그동안 대금 지불은 얼마나 됐습니까?

○事務局長 李種相 현재 5월까지만 지급이 됐고 6월은 아직 안했습니다. 현재 1,500만원 지급됐습니다.

○朴文培委員 이것을 종로구의회에 국한한 이유는 뭐니까?

○事務局長 李種相 그건 먼저 運營委員會에서 議決해주신 대로 해서 집행만 했습니다.

○朴文培委員 그 부분 설명보다 어떻게 질문을 드려야 제가 원하는 답이 나올까요? 다시 말씀드리면 議員들의 홍보가 전혀 되지 않는 그러한 부분을 議員들에 대한 홍보용으로 채택해서 종로신문을 구독하기로 한 것으로 이 답을 듣고자 하는데 맞습니까?

○事務局長 李種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울신문하고 타구에서 보면 지역신문은 구에서 지원을 해주지 않으면 운영이 안되기 때문에 그거는 대개 타구에서는 공보실을 통해 나가는데 저희 종로구는 의회의 기사가 덜 나가니까 의회 기사를 많이 내기 위해서 우리 의회에서 직접 그렇게 지원해주는 것으로 작년에 예산편성이 됐고 또 1월 달에 어느 신문을 볼 것이냐 이 예산을 어떻게 집행했으면 좋겠느냐 해서 그 당시에 1월 12일날 운영위원회에 그것을 토의를 해서 결정을 해주신 대로 집행을 했습니다.

○朴文培委員 이해합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 겸 답을 삼입해 드렸는데 우리 의정활동사항을 소상히 지역신문에 알려야 된다는 사명감 때문에 의회에다가 운영위원회에서 예산을 지방신문에 한 예산을 줬다는 그런 답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뜻에서 예산을 의회에서 집행하면서 예를 들어서 다른 신문 같으면 우리 구청 보도실에서 나가는 그러한 신문 구독료를 우리 의회에 끌어들이 이유가 의회 의정활동사항을 지역신문에 소상히 알려서 지방자치에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소개하는 점 또한 지역신문을 살리자 하는 뜻이 포함된 것으로 이해되는 답으로 들겠습니다. 그러면 소위 우리 지역의 세금, 주민이 낸 혈세를 막연하게 지역신문을 돕겠다, 지역신문에는 두 종류

의 신문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지정해서 종로신문에 독점 혜택을 주는 이유는 뭐니까?

○事務局長 李種相 그건 제가 한 게 아니고 운영위원회에서 議決된 사항입니다.

○朴文培委員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몰라서 묻는 게 아닙니다. 서로 이해를 하자는 뜻입니다. 그래서 밑든 곱든 우리 지역의 신문이라면 다 고르게 혜택을 줘야 되는 부분을 인식하는 그러한 것을 질문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의회가 신문구독을 끌어안았을 때 여기에 대한, 보도에 대한 통제라든가 그러한 면을 확인해 보셨습니까?

○事務局長 李種相 보도에 대한 통제는 저희가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구독료를 '여기여기 보내 주십시오' 했기 때문에 신문사에 대한 보도사항까지는 저희가

○朴文培委員 제 질문의 본질은 통제란 것을 무슨 언론을 규제하자는 뜻이 아니고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지원해주고 의회활동란을 싹겠다 하는 그러한 목적이 깔려 있다면 그러한 의원 활동사항을 고르게 배분해서 신도록 하는 이러한 통제성의 애기를 구하는 겁니다. 그런 뜻에서 내부의 누구에게는 많이 실어주고 누구는 소외되고 이러한 문제를 신문사에 제의를 한 적이 있는가 묻겠습니다.

○事務局長 李種相 그건 수차에 걸쳐서 안난 분도 해드리고 평균적으로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를 여러 번 했습니다.

○朴文培委員 마지막으로 의원별로 보도된 숫자의 통계를 밝혀주실 수 있습니까?

○事務局長 李種相 전체 숫자하고 평균하고 최고 최다를 했는데 이게 사실 한 건도 안난 분도 있고 해서 저 혼자 가지고 있는데 웬만하시면...

○朴文培委員 그것을 지금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다루어서 왜냐하면 그동안 신문이란 것은 공평과 신속하고 정확한 사명을 가지고 지역신문이고 국가신문이건 간에 이 사명을 전제조건으로 하는 것만이 신문의 생명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선 의회 지방지이기 때문에 의회란을 중

로신문에서 많이 할애를 했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저도 주문을 했습니다만 局長께서 확인한 바가 있으면 의원의 질문에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별로 몇 회의 보도가 나갔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事務局長 李種相 한 번도 안난 분이 한 분 계시기 때문에 열람을 하면 와서 보시든지 하고 여기서는 좀 朴委員長이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고, 그리고 이런 평균치에 가깝도록 제가 재차 신문사에 얘기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朴文培委員 그러면 이렇게 형평성을 잃고 사사로운, 잡종지에 불과한, 광고지에 불과한 지방신문을 우리 의회에서는 단호히 지원하는 제도를 고려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羅在岩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계속 6개월간 우리가 구독을 해왔고 그 구독에 대한 앞으로 다시 구독을 할 건지 안할 건지에 대한 토론이 되겠습니다. 또 신문사의 고유권한도 있고 해서 事務局長님께 답을 구하는 것은 조금 애매하다 우리 자체의 토론으로 종결하는 것이 좋겠고 오늘도 이렇게 되면 이 자체가 방향이 이상하게 가는 것 같은데 구독 여부에 대한 것만 토론을 했으면 어떻겠느냐, 그간 委員長들 갖고 계시는 구상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걸 토론하세요.

(「委員長!」하는 委員 있음)

네, 丁昌熙委員! 토론하세요.

○丁昌熙委員 지금 局長님 답변 중에서 공통사항 32건을 제외하고 개인에 대한 보도가 80건이 됩니까?

○事務局長 李種相 아닙니다. 공통사항은 전체가 112건입니다.

○丁昌熙委員 112건에서 공통사항 32건을 빼면 개인적인 성격이 80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다가 7회, 최소가 1회도 안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사실상 의회의 의정활동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의회 의정활동에 대한 순수한 보도 내용이 80건인지 그렇지 않으면 의장단이나 상임위원장단의 향후 계획이라든가 결산, 주민에 대한

대표성을 지닌 보도사항이 포함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개인적인 활동까지 포함된 건지 議員이 소속되어 있는 단체에 대한 홍보내용도 포함된 건지 아니면 시론이나 평론까지 포함된 건지 분석을 해보셨습니까? 의정활동에 대한 것만 80건입니까?

○事務局長 李種相 그렇습니다.

○丁昌熙委員 그러면 지금 상임위원장이라든가 의장단까지 다 포함이 된 겁니까?

○事務局長 李種相 그렇습니다.

○丁昌熙委員 그러면 의장단이나 상임위원장단을 취재를 해서 거기에 많은 회수가 상당히 나올 수밖에 없는 당위성이 어느 정도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나머지 외에 한두 번 정도는 골고루 돼야 하는 상황에서 그렇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알기 쉽게 얘기를 해주시면 좋는데 막연하게 그냥 7회, 1회도 없다 하시면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事務局長 李種相 알겠습니다.

(「委員長!」하는 委員 있음)

○委員長 羅在岩 네, 李炯述委員! 토론하세요.

○李炯述委員 우선 정시에 참석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께서 종로신문을 앞으로 계속 구독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또 요일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본 종로신문, 지역신문을 우리 의회 차원에서 우리 의원들이 주관을 해서 잘못된 면은 운영위원회에서 걸러 넘어가야지 될 일이지 事務局長이 여기에서 거기에 대한 자료만 제출하면 될텐데 깊게 추궁조로 하는 것은 잘못됐지 않나 생각이 되고 지금까지 112건 중 32건이 공통사항이고 나머지 80건이 개인적인 것이 나왔다고 하는데 의원 한 분에 한 건도 없이 넘어갔다는 것은 종로신문 자체가 큰 잘못이다. 그러면 그 의원이 의정활동을 전혀 하지 않았느냐? 기사를 보내서 그 의원을 취재하면 당연히 나오게 되는데 그런 점이 잘못됐지 않나 생각되고 앞으로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런 일이 재현돼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지역신문이란 것은 아주 필요합니다. 지

방자치를 하는 데 중앙지보다도 가장 필요한 게 지방지입니다. 이 지역신문이 전에는 종로저널과 종로신문 2개가 있었는데 종로저널은 우리 의원 위상을 자꾸 깎아 내리는 데 앞장을 섰기 때문에 지난 6개월동안 종로신문이 좀 잘해서 뒤따라 가가지고 종로저널이 잘 해줄 게 아니냐 해서 6개월 한시적으로 한 군데다 치우쳐 놔는데 앞으로 이 신문은 본 위원으로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계속 발간이 돼서 지금 받아보는 우리 住民들이 계속 봐야 합니다. 우리 의정활동 하는 걸 한두 의원이 소외되게 해가지고 의정활동 했던 것을 홍보를 안 한 거는 대단히 종로신문 자체가 잘못됐지만...

○委員長 羅在岩 李炯述委員! 표결할 때 자신의 의견에 찬성과 반대를 하고 지금은 종로신문에 대한 시정문제를 가지고 토론하는 겁니까?

○李炯述委員 그러니까 얘기를 하고 넘어가야지 당위성 자체를 모르고 내가 왜 종로신문이 계속 발간이 돼야 하는가 하는 얘기를 하는데...

○委員長 羅在岩 제가 종로신문사 3대 사장을 지내면서 종로신문의 애로사항을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李炯述委員 委員長! 委員長은 委員들이 얘기하는 것을 하나하나 찾아서 타당치 못해 가지고 회의에 도저히 이런 분위기로는 안되겠다 하면 발언을 중지시킬 수는 있을망정 위원의 말을 자르면 안됩니다. 토론시간이니까 토론시간을 딱 정해 주시면 그 시간 안에 끝을 내면 되지 지금 運營委員長이 會議할 때 한 위원이 몇 분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도 없고, 본 위원이 얘기한 게 불과 3분입니다.

○委員長 羅在岩 좋습니다.

○李炯述委員 몇 분 안에 끝내게 할 일이지... 본 위원이 의견을 개진하는 중이니가 본 위원이 말을 하던 거를 매듭지을 수 있는 시간을 주셔야지 하다가 딱 끊어버리면 회의진행하는 데 무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매듭을 빨리 지어주시오 해야지.

본 위원으로서 이 종로신문이 앞으로 지나간 잘못된 점은 시정을 하고 계속 발간이 되어서 지

금 받아 보던 우리 많은 종로구민들이 우리 의원들의 활동사항을 널리 알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해서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매듭짓겠습니다.

○委員長 羅在岩 그러면 李炯述委員! 어떤 방향으로 시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李炯述委員 지금 우리 21명의 의원이 있습니다. 어느 의원은 한 열 번을 취재하고 어느 의원은 한 번도 안했다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일이지. 그래서 한 번도 신문에 안 나온 의원은 그 지역의 일을 안했고 의정활동을 안했다고 얘기를 하는 것은 잘못되지 않았나 그래서 골고루 의원들을 찾아다니면서 그 의원이 활동하는 사항, 의정활동하는 데 대해서 취재를 해가지고 널리 구민에게 알릴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해나가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委員長 羅在岩 본 위원장도 지금 신문이 기사가 기사를 찾아다니느냐 기사가 기사를 찾아다니느냐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앉아서 데스크 보도나 하고, 있는 사실에 접근하지 않고 본인의 의견 없이 내는 무례함도 간혹 봅니다. 인터뷰 기사나 그런 것은 하지 않고 그냥 일괄 단편으로 해서 데스크식으로 내는 것은 지양되어야 되겠다는 몇가지 시정을 하면서 말하자면 가부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다른 위원

(「委員長!」하는 委員 있음)

예. 玄壽漢委員 먼저 하시지요.

○玄壽漢委員 여태껏 지역 구민들에게 구독을 시켰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하반기에 중단한다고 하면 굉장한 오해의 소지도 있고 하니까 종로신문이 편파적인 보도라고만 볼 수가 없습니다. 저한테도 우선 여지껏 1년 동안에 인터뷰 한 번 해본 적이 없습니다마는 내 기사가 몇번 나간 것으로 봤습니다마는 그런 것은 차후 시정을 하도록 하고 우리가 계속 하반기에 구독을 하도록 지원을 해주는 게 저로서는 타당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委員長!」하는 委員 있음)

○委員長 羅在岩 네, 安哲柱委員 말씀하십시오

○安哲柱委員 安哲柱委員입니다. 우선 제61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의 부의안건으로 하반기 신문 구독의 건을 저희들이 다루고 있다는 이 자체도 상당한 모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경상비 경비 중 홍보활동비에 대한 집행 계획이라면 모르지만 의회에서 그것도 어느 신문을 구독 할지에 대한 명시 없이 하반기 신문 구독의 건에 대한 것을 다루는 자체도 저는 이것을 우리 운영 위원회에서 다룰 사항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산은 예산이 짜여지면 그 집행 계획에 대한 세부적인 것에 대한 것은 사무국에서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996년 1월 12일 의회사무국 의회 예산 집행 계획에 의해서 6개월로 한시적으로 구독을 결정해 준 것에 대한 것은 이미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더 이상 논란의 대상이 안된다 할지라도 차기 연기구독에 관한 것들은 저희 운영위원회는 오늘이 사실상 마지막입니다. 제61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보면 내일이면 새로운 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좀더 구체적으로 앞으로 더 지원해야 될 사항이 발생한다면 더 지원하고 더 지원하지 않아야 될 요인이 발생된다면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지원을 검토해야 될 사항이기에 오늘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다루는 사항에 대한 것은 구독 여부에 대한 것 자체까지도 차기 상임위원회 운영위원회에서 간담회 형식으로 처리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委員長 羅在岩 지금 제가 두 번씩 미루어 가면서 종로신문 얘기를 했습니다. 어느 신문이냐고 얘기를 하셨는데 종로신문 구독 계속의 건입니다. 사실은, 계속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에 대한 우리가 여기에서 결정을 내려 줄 때 그 결정을 내리는 것에 대한 우리가 토론하는 것입니다. 지금 동의를 하신 취지가 지금 다음 기회로 미루자는 그런 동의입니까?

○安哲柱委員 다시 말씀드리면 제61회 임시회 의사일정 상으로 봤을 때 내일이면 새로운 운영회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새로 구성된 운영위원회에서 이 사항에 대한 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최종 결정을 한다고 할지라도 전혀 문제가 없는 결로 이렇게 사료되기 때문에 이번 부의안건인 하반기 신문 구독의 건은 차기 상임위원회로 결정을 미루어 주실 것을 동의를 합니다.

(○朴文培委員 議席에서 - 찬성합니다.)

○委員長 羅在岩 지금 安哲柱委員이 여기에서 토론을 중지하고 이 자체를 다음 운영위원회에 구독 계속 여부를 묻는 것으로 넘기자고 하는 안이 나왔습니다. 이 안에 재청이 있었어요.

(「委員長!」하는 委員 있음)

예, 李炳文委員이 먼저 거수하셨으니까 먼저 하 시죠.

○李炳文委員 李炳文委員입니다. 오늘 우리 운영위원회가 오늘이 아마 마지막으로 끝나는 것 같습니다. 상반기 종로신문사 지원이 6월 30일자로 끝이 난 결로 알고 있습니다. 하반기 지원 문제 때문에 우리가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그동안 즉 종로신문을 검토한 결과를 보면 의회란을 새로 만들어서 상당히 공고내용도 어느 정도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우리 위원들이 대다수가 미흡한 면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종로신문 하반기 지원문제는 내일이면 우리가 새로운 상임위원회가 구성됩니다. 본 위원도 이 安哲柱委員의 하반기 지원문제는 내일 상임위원회가 구성되면 거기에서 충분한 토론을 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羅在岩 다음 상임위원회 구성 날짜는 내가 지금 아직 모르겠습니다. 저도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것은 7월 13일까지가 종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권한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것을 넘기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씩 미루어 올 때는 이것을 다시 미루자고 하는 건지에서 제가 하는 게 아니고 계속 구독을 하는데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에 대한 구독을 계속 할

것이나 안할 것이냐에 대한 지금까지 많은 연구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려서 이것을 다시 다음으로 미루는 문제에 동의를 하셨는데 참 암담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우리가 여기에서 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지금 문제가 있는데 지금 安哲柱委員 말씀은 일단 그렇습니다.

(「委員長!」 하는 委員 있음)

예 金以煥委員 말씀하십시오.

○ 金以煥委員 金以煥委員입니다. 종로신문 문제로 훌륭하신 말씀들 많이 해주시고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은 이것을 말씀을 드리기 전에 결론을 먼저 내리고 얘기를 할까 합니다. 염불에는 생각이 없고 신문사라는 데가 잣밭에만 눈이 어두워 있어요. 그 이유는 우리가 신문에 상당한 우리 의회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고 그런 데 광고나 이름 하나 딱 써넣고 그런 데에서 돈이나 가져가려고 의원들을 독촉이나 하고 또 그것은 보지 않은 일이지만 아까도 어떤 위원이 말씀하시던데 돈이라도 잘 주는 의원들은 신문에 한 번이라도 더 내주고 돈 안주는 의원들은 신문에 안내준다고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이런 지역신문으로서 우리 종로구의회를 비롯하여 종로구 전체를 잘 나가게끔 활성화해서 기사화하려고 하지는 않고 본 위원이 보기에 저는 아까도 서두에서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그러한 것들이 많이 있는 문제를 과연 우리 의회가 계속 지원을 해야 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에게 간곡히 호소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꾸 이렇게 나가면 결과적으로 우리 의원들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냥 해버리고 넘어가고 다음에 가서 또 안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까 우리 사무국장님한테 뭐라고 하니까 사무국장님이 이렇게 했는데 안 들었습니다.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우리 전체 위원님들에게 정말로 호소드립니다. 이런 신문은 과감히 잘라내야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羅在岩 대충 다 한 번씩 발언을 해주

셨습니까? 이제 시간도 그러니까 제가 바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應答하는 委員 없음)

먼저 우리 安哲柱委員께서 동의해주신 다음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하는 안에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해 주십시오.

(○玄壽漢委員 議席에서 - 委員長님! 그것은 좀 잘못되지 않았어요? 지난번 운영위원회 때 정식 이번 회기 중에 채택을 해가지고 지금 다루는 건데 이제 와서 마지막 판에 다음 운영위원회가 7월달에 있을지 8월달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내일 원이 구성이 되지만 임기는 아직까지도 남아있고)

○委員長 羅在岩 본 위원장 생각도 그렇습니다. 지금 그렇게 발언을 해주니까 그러면 반대를 해주시면 된단든지 이런 것은 자기 의사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선 安哲柱委員이 다음 운영위원회로 넘기자고 하는 안에 동의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그것을 안으로 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安哲柱委員의 안에 동의하시는 분 거수해 주십시오.

(舉手表決)

4분입니다. 내려주십시오. 그 다음 李炯述委員의 계속 구독의 건에 동의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십시오.

(舉手表決)

4분입니다. 본 위원장도 지금 거기에 찬성합니다. 그러면 기권 한 분이죠? 그러면 4대 4가 되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안을 채택할 때 그 때 당시 전부 만장일치로 가결했다가 지금 다시 이 안을 놓고 진지하게 두 번씩 미루어 가면서 오늘 토론을 했는데 사실상 오늘 귀중한 날입니다. 저희들 마지막 회의를 마치는 좋은 날에 이렇게 되어서 조금 뭐하기는 합니다마는 어쨌든 좋습니다. 우리 의회 회의규칙에 의해서 가부 동수가 되면 부결이 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委員 여러분! 정말 수고했습니다. 오늘 서로 토론을 진지하게 종로신문 계속 구독

의 건에 대해서는 다음 운영위원회에서 다루기로 하고 위원장이 의장에게 보고를 하겠습니다.

(○丁昌熙議員 議席에서 - 運營委員長님! 지금 안건이 두 개가 상정이 되었습니다. 계속 구독인가 그렇지 않으면 차기로 넘겨서 토론하는 것인가 이렇게 두 가지인데 지금 현재 이 자리에서 결정지를 건가 그렇지 않으면 다음 회기로 넘길 것인가 두 가지로 물어주셔야 되는데 계속 구독할 것은 지금 현재로 이 자리에서 결정을 할 것이냐가 결정된 이후에 계속 구독 여부를 물으셔야지 그게 타당한데 그렇지 않았습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구독을 종로신문에 대한 구독을 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 했을 적에 계속 구독을 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 그 문제가 논해져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안건이 발의가 되어 가지고 지금 새로운 안건이 다음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안에 대해서 가부를 결정을 하고 그런 새로운 의견에 대한 가부 결정을 하시는 걸로 이렇게 물어서 의사표명을 단순하게 처리를 해주셔야지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委員長 羅在岩 본 위원장이 분명히 계속 구독의 건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安哲柱委員이 계속 구독의 건을 접어두고 차기로 미루어서 하자고 하니까 그것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재청도 받았고.

(○丁昌熙議員 議席에서 - 委員長님! 安哲柱委員이 차기로 미루어서 토론을 했으면 좋겠다는 안을 제시를 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동의 재청이 나왔기 때문에 그 안에 대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결정을 지을 건지 차기로 미루어서 결정 지을 건지 그 결정사항을 어떻게 할 건지 거기에 대해서 물어주셨으면.)

○委員長 羅在岩 계속 구독을 하자하고 안 하자하고 두 건을 물었을 때는 제가 그렇게 지금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安哲柱委員이 다음으로 넘기자고 하는 안을 지금 동의를 해 주셨는데 재청이 있었던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것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두 안을 물었을

때도 4대 4로 지금 나왔어요. 그런데 가부가 동수일 때는 부결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차기로 하시지요.

그러면 이상으로 제61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바쁜시간에, 제2차 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10時 55分 散會)

○出席委員 9人

羅在岩 安哲柱 李炳文 玄壽漢 李炯述
丁昌熙 朴鍾植 朴文培 金以煥

○出席專門委員

尹柱彩 蔣昭秀

○出席關係公務員

議會事務局長 李 種 相